

함께 가는  
성모발현지

제 5 화

# 파티마의 성모

글·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오늘은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월 13일  
총 여섯 번 성모님이 발현한  
파티마로 떠나볼게요.

포르투갈의 산타렘 현  
빌라노바데오렘에 있는 마을  
파티마에서 세 명의 어린 목동에게  
발현했고, 처음 발현한 5월 13일은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념일로  
지정되었어요.

성모 발현을 목격한 세 명의 아이는 루치아 도스 산토스와 그녀의 사촌  
프란치스코 마르토, 히야친타 마르토예요. 성모님은 세 어린이들을 통해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위해 목주기도와 고행, 희생 등을  
바치라고 당부했어요.

성모님은 그 대가로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더  
끔찍한 세계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세계평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성모님이  
나타났대요!

허허... 설마

성모님이!

사람들의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발현 횟수가  
거듭됨에 따라 발현을 믿는 군중의 수는 획기적으로  
늘어났어요.

성모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약속한  
10월에는 태양이 지상에 수직으로 떨어지며  
회전하고 갖가지 빛을 발하는 '태양의 기적'을  
7만명의 군중이 목격했어요.

성모님의  
기적이다!

오~마이 갓!

오~주어!

성모님은 '파티마의 비밀  
(예언 혹은 메시지)'을 전해주었어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비밀은 지옥에  
대한 환시였고, 두 번째 비밀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죄인들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비밀은 성모님의 지시로 1960년까지 비밀에 부쳐졌는데,  
1960년이 지나서도 교황청에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바람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라는 등 온갖 억측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1981년에는 세 번째 비밀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항공기  
납치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5월  
13일, 세 번째 비밀 내용을 공개했어요.  
세 번째는 교황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환시였다고  
해요. 1982년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저격 사건이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어요.

성모발현 100주년이 되던 2017년 5월 13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티마를 방문해 수십만의  
순례자들 앞에서 프란치스코 마르토와 히야친타  
마르토에 대한 시성식을 거행했어요. 두 사람은  
사망 당시 각각 11살과 9살에 불과 했어요.  
순교자가 아닌 아동이 성인 반열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마르토 남매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이른 나이에  
선종했고, 루치아는 2005년 선종 후 시성 심사 중에 있음.

파티마의 성모발현지 1930년에  
포르투갈 주교들에 의해 공식 인정되었고,  
교황청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포르투갈 국민들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나라 전체에 큰  
희망이 되었어요. 이 점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권은 40여년 전 무너졌지만,  
파티마는 여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기적을  
바라며 찾아 오고 있어요.